

# 마흔째 절의 감추어진 역사 - 다섯 번째 수

처음 네 개 조항을 새롭게 함

Jeff Pippenger

2026-04-01

우리가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면서, 먼저 이 연재의 첫 네 편의 기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 연재의 첫 번째 글은 예언적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로 묘사하며, 그분께서 결정적인 시점마다 다니엘 11장의 일부를 개봉하시어 144,000의 최후 개혁 운동을 인도하신다고 밝혔다. 그 글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와 일치함을 밝힘으로써, 1989년(1863년 재림교회의 반역 이후 126년 되는 해)에 그 사자께서 다니엘 11:40-45를 개봉하셨음을 규명한다. 개봉된 그 절들은 1798년에 입은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통하여 그 상처가 치유되어, 마침내 45절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서의 아마겟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144,000의 운동이 미국에서 곧 도래할 일요일 법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40절의 감추어진 역사(1989년부터 그 일요일 법에 이르는 기간을 포괄하는)는 2023년 7월에 개봉되기 시작하였다.

엘렌 화잇의 주석, 곧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다니엘서의 봉하지 아니한 부분이 서도록 준비시키는 “지식의 증가”를 산출한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 곧 하나님의 기별들과 품성으로 규정된다. 그 봉인 해제에 다니엘 12:10의 삼중 시험 과정을 촉발하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며 희게 되며 연단을 받”는다. 그 역사는 1989년에 시작하여 2001년 9월 11일을 거쳐 2023년 7월에 이르기까지, 예언이 봉인 해제된 여러 예언적 시점을 나타낸다. 그러한 다양한 봉인 해제들은 1989년부터 9/11까지의 기간, 9/11부터 임박한 일요일 법까지의 기간, 그리고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지체의 때의 기간, 곧 자정 외침의 기별이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봉인 해제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으로 표상된, 십사만 사천에 속할 후보자들의 각성은 봉함이 풀림으로 성취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황권과 일요일 법과 같은 위험을 보여 주는 이 “귀중한 빛”에 깨어나지 못하면, 이단들이 그들을 체질하여(알곡에서 쭉정이를 갈라내듯) 분리해 낸다. 1888년의 블레어 법안과 애국자법과 같은 더 이른 예언적 이정표들은 예언적 경고로 제시된다. 그 글은 다니엘서 11장 안에 제시된 예언 역사상의 모든 이전 노선들이 40-45절에서 반복됨을 밝힌다. 그 글은 짐승의 우상이 먼저 미국에서, 그리고 이어서 세계에서 형성되는데, 이는 321년과 최초의 일요일 법으로 예표되며, 이어서 미가엘이 일어나고 은혜의 시기가 마쳐질 때 538년으로 예표된 전 지구적 짐승의 우상이 뒤따름을 밝힌다.

네 편의 글 가운데 두 번째 글은 2001년의 애국법(Patriot Act)을 요한계시록 13:11의 성취로서 미국이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언적 틀을 계속 이어간다. 애국법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시작에 있는 세 이정표, 곧 1776년 독립선언서, 1789년 헌법,

1798년 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에 평행하는 세 가지 헌정적 부인의 첫 번째였다. 1888년에 실패한 블레어 법안(Blair Bill), 곧 전국적 일요일법 제정 시도는 66년에 있었던 케스티우스의 포위가 철수한 것과 같이 철회되었는데, 이 둘은 모두 2001년을 예표하였으며, 그때 애국법은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에 대한 시험 기간을 개시하였다. 애국법은 1776년과 상응하며, 영어의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보통법을 로마의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라는 시민법으로 대체하였다. 1789년으로 표상되는 중간 이정표, 곧 2022년 1월에 시작된 펠로시 재판(Pelosi Trials)은 정치적 법률전을 통하여, 위장 공작과 기관의 부패를 통하여 절차적 및 실제적 적법절차를 짓밟았고, 기본권을 공공연히 부인하였다. 2001년 애국법, 2022년 펠로시 재판, 그리고 장차 올 일요일법에서의 이 세 가지 “말함”의 이정표는 미국 헌법의 모든 원칙을 점진적으로 부인한다.

그때에 개신교는 교황권 및 강신술과 더불어 삼중 연합을 이루게 되며, 그 시점에서 미국은 용처럼 말하고, 짐승의 우상을 완전히 형성하며, 그 유예 기간의 잔을 채우고,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존재를 그치게 된다. 그 후에는 국가적 배도가 국가적 멸망으로 이어진다. 일요일 법령에서의 그 말함은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제정한 최초의 일요일 법령의 시작으로 예표되며, 이어서 그 끝과 마지막 일요일 법령은 538년으로 표상된다.

이 모든 사건은 다니엘 11:40의 예언적 역사 속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은 밀러 운동의 노선 및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는 노선과 평행을 이룬다. 요한계시록 12:15-16은 헌법을 한때 용의 박해의 홍수를 삼켜 버린 “땅”으로 묘사하며, 그 헌법은 임박한 일요일 법에서 마침내 용처럼 말하게 된다. 엘렌 화잇은 『교회증언』 제5권(711쪽 및 451-452쪽)에서 교황권에 양보하는 어떠한 종교 입법도, 그리고 일요일 법이 용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이는 1776년, 1789년, 1798년의 세 단계가 최종 시험에서 결론에 이르는 마지막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예표하는 이정표들이며, 그 시험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능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임을 확증한다.

세 번째 글은 『교회증언』 제5권 451-452쪽에 있는 엘렌 화이트의 경고를 더욱 상세히 전개하면서, 미국에 곧 닥쳐올 일요일 법이 그 나라가 의로움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삼중 연합(곧 개신교가 로마교와 심령술을 붙잡는 일)을 성취하는 결정적 순간을 표시한다고 단언한다. 그리하여 미국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적 원칙을 부인하고, 교황권의 미혹을 퍼뜨리게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되며, 그리하여 그 나라의 최악의 잔을 가득 채우고, 자비의 천사의 떠남을 촉발하며, 국가적 멸망을 개시한다. 그때에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한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이르는데, 이는 두 번째 무리의 교황권 순교자들이 채워짐으로써이다. “일요일 운동”이 말할 때 용의 영이 드러나며, 그것은 파멸에 앞서 도시들에서 피하라는 표징으로서 현대의 “멸망의 가증한 것”(다니엘이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바)으로 봉사한다. 일요일 법은 2001년 애국자법으로 시작된 헌법에 대한 점진적 부인의 결말이며(이는 1888년 블레어 법안들, 주후 66년 케스티우스의 포위, 그리스도의 침례, 1840년 8월 11일,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서로 예표되었다).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기간은 복잡한 이중 노선을 포함하는데, 이는 서로 병행하는 공화주의적(정치적) 및 개신교적(종교적) “뿔”과 관련되며, 이 두 뿔은 마침내

일요일 법률의 교회-국가적 강제 시행 안에서 연합한다. 그 관계는 교황권적 짐승 위에 여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반영하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헌법의 핵심 원리가 전복될 때 완전히 나타난다.

내적으로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시험의 시기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품성 형성—곧 그리스도의 형상 대 사탄의 짐승 형상—을 시험하여,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구별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의 정치적 투쟁과 동맹들과 파기된 조약들을 식별한다. 2001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기간은 늦은 비의 뿌림을 개시하는데(곧 2001년 9월 11일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와 뉴욕의 큰 건물들의 붕괴를 통하여 땅을 환하게 비춘 때에 시작되었다). 9/11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처럼 먹어야 할 “작은 책” 기별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함을 통하여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체질하기 시작한다. 밀과 가라지는 일요일 법령에서 분리될 때까지 함께 남아 있으며, 그때에 십사만 사천이 기치로 높임을 받고, 321년에서 538년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짐승 우상 형성 동안 늦은 비의 총만한 부어 주심이 도래한다. 그 후 바벨론에서 나오는 큰 무리의 모임이 미가엘이 일어서고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시작된다. 이것은 심판이 9/11부터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일요일 법령 이후 제십일 시의 일꾼들에게로 나아간다는 것과 일치한다.

세 번째 글은,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박해가 뒤섞여 반복되는 그 시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사야 28장의 line-upon-line 방법론을 통하여 예언을 미리 숙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방법론은 다니엘의 신실한 자들, 오순절 이전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예증되며, 이들은 사탄의 경이로운 역사와 위조물들 한가운데서도 “기록되었으되” 위에 굳게 서도록 준비된 자들을 예표한다.

넷째 기사는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예언적 시험 과정이 세 개의 헌법적 이정표들(초기의 “말함”으로서 2001년의 애국자법, 중간으로서 2022년의 펠로시 재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의 일요일 법)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또한 서로 맞물려 있음을 설명한다. 이 시험 과정은 국가적 배도가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일요일 법에서 시작되는 박해의 정점 시험을 견디도록 슬기로운 처녀들(14만 4천)을 준비시킨다. 그때 사탄은 기이한 위조물들(기적들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을 풀어놓고, 하늘의 영광은 반복되는 과거의 박해들과 뒤섞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하는 빛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준비는 요한복음 6장에서의 그리스도의 전략(시대의 소망, 394에 주석된 바와 같이)을 반영하는데, 그분께서는 심한 시험이 이기적인 추종자들을 일찍이 도태시키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참된 제자들이 당신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최후의 시험(겔세마네, 배반, 십자가형)을 위하여 강건하게 되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짐승의 형상 시험—내적인 품성 형성(그리스도의 형상 대 사탄의 짐승 형상)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뒤엎는 외적인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포괄하는—은 라오디게아적 재림교를 체질한다. 그 시험은 이사야 28장의 축선 위에 축선의 방법론을 통하여 봉인되지 않은 기별을 받아들임으로써 슬기로운 자들을 정결하게 한다.

개봉되지 않은 빛은 일곱째 인의 빛(요한계시록 8:1-5)으로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땅에 던져진 불로 나타나며, 오순절의 부으심 때 임한 불의 혀들로 예표되었다.

개봉되지 않은 빛은 또한 밀러 운동의 자정 부르짖음으로도 표상되었는데(이는 지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켰다), 이 자정 부르짖음은 다니엘 11:40의 숨겨진 역사 안에서, 2023년 7월에 개봉된 현대의 자정 부르짖음으로 성취될 것이다. 9/11 이후 늦은 비의 뿌림에 관한 기별과 더불어, 교황권과 일요일 법에 관한 지식의 증가, 일곱 우레의 개봉, 40절의 숨겨진 역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개봉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짐승의 우상 형성에 대한 상세한 예언적 조명—공화당과 개신교라는 두 뿔의 투쟁, 정당들, 라오디게아적 재림신앙, 144,000의 출현, 이슬람의 셋째 화, 러시아, 유엔, 교황권의 세력, 그리고 하스몬가의 평행 구조를 포함하는—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지나간 인도를 잊지 않고(Testimonies to Ministers, 31)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작은 책”(요한계시록 10장)을 먹고, 베뢰아적 연구를 통하여 그 역사를 미리 내면화함으로써, 십사만 사천은 사탄의 기만 가운데서도 “기록되었으되”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 그들의 준비는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일을 피하게 하며(히브리서 10:37-39; 하박국 2:4),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특히 넷째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시험을 거쳐 입증된 승리자들로 나타난다. 그들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며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최후의 위기를 통과하는 자들이며, 반면 어리석은 자들(그 방법론과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강한 미혹에 직면하여 소망이 없게 된다. 이것은 『교회증언』 제9권의 「왕의 오심을 위하여」 장(11쪽부터 시작)의 9/11 상징성과도 일치하며, 따라서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기간을, 지혜 있는 자들이 다니엘 11장의 성취의 완결을 깨닫고 과거의 거룩한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치는 시기로 밝힌다.

네 편의 글은 함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으로서, 결정적인 시점마다 다니엘서 11장의 일부를 개봉하여 십사만 사천의 마지막 개혁 운동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보는 예언적 해석을 제시한다. 1989년, 1863년의 재림교회 “반역” 이후 126년째 되는 해에, 그 사자는 다니엘 11:40-45를 개봉하셨으며, 그리하여 40절의 세 겹의 연합(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서 교황권의 1798년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드러내고, 45절에서 교황권이 최종 심판을 받는 곳인 아마겟돈, 곧 “영화롭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개봉은 그 운동의 시작을 일으키며, “교황권과 일요일 법”에 관한 “지식의 증가”(Selected Messages, book 2)를 산출하고, 다니엘 1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고 연단을 받는” 삼중의 시련을 촉발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 이어가겠다.